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Ⅱ)

대학		학부 · 학과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 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찍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일반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다에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어부는 낚시를 할 수 있었고, 어부가 낚시를 했기 때문에 병든 딸이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었고, 딸이 맛있게 생선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선 가시가 발라져 나왔고, 생선 가시가 발라졌기 때문에 고양이는 그날 생선 가시를 먹을 수 있었고, 고양이가 맛난 생선 가시를 먹었기 때문에 밭을 누비며 똥을 싸고, 똥을 싸기 때문에 땅이 오랜만에 거름을 받을 수 있었고, 거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땅이 되었고, 건강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지렁이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지렁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을 수 있었고, 아빠 새가 지렁이를 잡았기 때문에 엄마 새는 지렁이를 먹을 수 있었고, 엄마 새가 지렁이를 먹었기 때문에 새알을 낳을 수 있었고, 새알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쁜 아기 새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아기 새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는 저렇게 멋진 새들이 날아다니는구나.

(나) 우륵은 이사부의 숙사를 향해 다리를 절며 걸었다. 신발이 헤어져서 발가락에 피가 흘렀다. 금*을 멘 니문이 우륵을 부축했다. 성문에서부터 무장한 위병 두 명이 붙었다. 목욕을 마친 이사부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마루로 나왔다.

“얼마 전에 서라벌로부터 통지가 있었다. 네가 가야의 악사 우륵이냐?”

“그러하오.”

(중략)

이사부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사부는 온몸을 흔들며 웃었다.

“그렇겠구나. 세상에, 온당하기란 쉽지가 않구나. 내, 풍편에 들었다. 너의 소리가 그리도 절묘하냐?”

“나의 소리가 아니라, 본래 스스로 흘러가는 소리요.”

“소리는 주인이 없는 것이냐?”

“소리는 들리는 동안만의 소리고 울리는 동안만의 소리니 아마도 그러할 것이오.”

“너희 나라 대장장이 야로를 아느냐?”

“가야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소.”

“그 늙은 대장장이가 말하기를, 병장기**는 주인이 따로 없어서 쥐는 자마다 주인이라 하였다. 소리는 병장기와 같은 것이냐?”

“소리는 없는 세상을 열어 내는 것인데, 그 세상은 본래 있는 세상인 것이오. 병장기가 어떠한 것인지는 병부령께서 더 잘 아시리이다.”

“그러니 아마도 소리와 병장기는 같은 것인 모양이로구나.”

* 금: 가야금 ** 병장기: 무기

(다) 두 소수(素數) 1997과 2011의 곱이 4015967임을 계산하기는 쉽지만, 거꾸로 4015967을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RSA 암호 체계인데, 두 소수를 비밀 열쇠로 하고 그 두 소수의 곱을 공개 열쇠로 사용한다. 따라서 암호 해독은 비밀 열쇠와 공개 열쇠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암호 체계의 생명은 보안인데, RSA 암호 체계에서 두 비밀 열쇠가 400자리 소수인 경우, 그 공개 열쇠를 현재의 컴퓨터 기술과 계산 방법으로 해독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라) 그 남자의 방에는 의자 두 개와 책상, 양탄자, 침대, 옷장이 하나씩 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자명종 시계가 놓여 있고 그 곁에는 오래된 신문들과 사진첩이 있다. 벽에는 거울 하나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산책을 하고, 이웃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녁이면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건 언제나 똑같았고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재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그러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러고는 양손을 힘껏 쥐고 쳐들었다가 책상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한 번,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내리쳤고, 그런 다음엔 책상 위를 북 치듯 두들겨 대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달라져야 해, 달라져야 한다고!”

그러자 시계 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양손이 아파 오기 시작했고 목이 쉬어 버렸다. 시계 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의자는 의자라고 한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피곤한데, 사진 속으로 들어가야겠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침마다 한참씩 사진 속에 누운 채로 이제 의자를 뭐라고 부를까를 고심했다. 그러다가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시계 위에 앉아 양팔을 책상 위에 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책상은 더 이상 책상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침에 사진 속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양탄자에 놓인 시계 위에 앉아, 무엇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지를 고심했다.

침대는 사진이라고 불렀다.

책상은 양탄자라고 불렀다.

의자는 시계라고 불렀다.

신문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시계는 사진첩이라고 불렀다.

옷장은 신문이라고 불렀다.
 양탄자는 옷장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책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진첩은 거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아침에 이 나이 많은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 속에 누워 있었다. 아홉 시에 사진첩이 울리자 남자는 일어나서, 발이 시리지 않도록 옷장 위에 올라섰다. 그는 자기 옷들을 신문에서 꺼내 입고는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보고, 양탄자 앞 시계 위에 앉아 자기 어머니의 책상이 나올 때까지 거울을 뒤적였다.

남자는 이 일에 재미가 들어 온종일 연습해서 새 단어들을 암기했다. 이제 모든 것의 이름이 달라졌다. 나이 많은 남자는 파란 공책을 사서 새로운 단어들을 그 안에 가득 적어 넣었다. 그 뒤로 남자는 모든 사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을 익혀 가면서 차츰 원래의 명칭을 잊어버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만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했다.

(마) 신제품 타이어를 만들어 보자. 먼저 ‘타이어’라는 단어를 보고 짧은 시간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머리에 스치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기억이나 경험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검은색 가죽, 아버지, 톱니무늬, 주유소, 정비사, 고마운 아저씨, 교통, 굴렁쇠, 눈동자, 안경, 신호등, 경찰, 바늘, 가락지, 자동차, 도넛, 비행기, 트랙터, 둥글다, 못, 풍선, 바람구멍, 휠, 119, 고속도로, 연탄, 돌린다, 굴러간다, 튜브, 고무, 놀이터, 배, 그네, 축구공, 애드벌룬, 쇠똥구리, 타이어 자국, 먹물, 사군자, 공기, 신발 등등

여러 학생들이 써 놓은 단어들에서 공통적인 것과 의외의 단어들을 찾아보고, 왜 그 단어가 생각났는지를 이야기해 본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제품 타이어에 대한 생각을 써 보자. 예를 들어 ‘아버지’의 경우는 ‘아버지의 배 위에서 자동차 놀이를 한 기억이 있다.’—‘아버지처럼 믿음직한 타이어’와 같은 방식으로 문안을 써 본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처럼 믿음직한 타이어’에 대한 시각적인 영상을 떠올려 보고 스케치한다. 그런 다음 학생들이 제시한 단어 중에서 타이어와 의미 관계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물들, 즉 도넛, 연탄, 눈동자, 쇠똥구리를 선택하고 신제품 타이어 개발에 필요한 4가지 요소인 색, 기능, 모양, 재료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물들을 규정하는 의미적 속성들을 추출하여 표에 채워 넣는다.

	타이어	도넛	연탄	눈동자	쇠똥구리
색	검은색	갈색	검은색	인종마다 다르다	고동색
기능	구른다	먹는다	태운다	본다	분해한다
모양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기둥	동그라미	동그란 쇠똥
재료	고무	밀가루	석탄	생체	생물체

위의 표를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자.

- ① 타이어는 대부분 검은색이다. 다양한 색깔의 타이어는? 패션 타이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 ②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위험하다. 좀 더 안전한 타이어는 없을까? 도넛의 단면처럼 기포로 만들어진 타이어는 어떨까?
- ③ 쇠뿔구리가 쇠뿔을 분해하듯이 페타이어를 분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위의 문제들을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바)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적극적 자유는 ‘~를 향한 자유’로 표현되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됨으로써 성립하는 자유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을 실천할 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적극적 자유는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자발적 선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공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원하더라도,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체계가 없다면 기증을 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 우리 격언 가운데 “호랑이한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가 요행히 살아 돌아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전해지고 축적되면서 도출된 삶의 보편적인 원칙이 된 것이리라.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호랑이에게 물려 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가령 100명이 물려 갔는데 그 가운데 80명이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그 결과 살아 돌아온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하자.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모험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입수하지 못한 정보는 나머지 죽은 사람들, 즉 정신을 바짝 차렸는데도 운 나쁘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증언이다.

(아) 양말이나 손수건의 값이 종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인 소득이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구입하는 양말이나 손수건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아 값이 크게 떨어져도 절약되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이나 채소처럼 소비자가 많이 구입해 소비하는 상품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소비자는 한결 여유가 생긴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영국의 한 경제학자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조사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감자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수요량이 늘어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던 감자의 경우에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가난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빵 대신

감자를 주식으로 하였는데 감자 가격이 내리자 감자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빵 소비를 늘린 것이다.

(자)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陣)나라에서 채(蔡)나라로 가던 도중 양식이 떨어져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다. 건기에도 지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그 사이 공자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제자인 안연은 몰래 빠져나가 쌀을 구해 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공자는 코끝을 스치는 밥 냄새에 박을 내다 봤는데 마침 안연이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 먹고 있는 중이었다. ‘안연이 평상시에 내가 먼저 먹지 않은 음식에는 수저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지금까지 안연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그때 안연이 밥상을 공자 앞에 공손하게 내려놓았다.

공자는 조금 전에 안연이 밥을 집어 먹었던 일을 못 본 체하고 누웠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면서 안연에게 말했다. “내가 방금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었네. 밥이 깨끗하다면, 그 어른에게 먼저 제사를 올리고 싶네.”

공자는 제사 음식은 깨끗하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연도 알기 때문에 그가 먼저 밥을 먹은 것을 뉘우치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안연의 대답은 오히려 공자를 부끄럽게 했다. “선생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위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공자는 잠시 안연을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자네들은 꼭 기억해 두길 바라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관계 맺음 방식’의 특징을 각각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30점, 500~520자]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사물을 명명하는 ‘남자’의 행위가 갖는 한계를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술하시오. [40점, 540~560자]

[문제 3] 제시문 (사)와 (아)에 나타난 오류를 각각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30점, 500~520자]